

# 장르 분류의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분류의 의미\*

- 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 The Meanings of Genre Classification in Library Classification: The Case of American Public Libraries

노 지 현(Jee-Hyun Rho)\*\*

### < 목 차 >

- |                        |                           |
|------------------------|---------------------------|
| I. 서론                  | 3. 장르 분류의 효과와 한계          |
| II. 분류의 본질과 기존 체계의 한계  | IV. 장르 분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
| III. 북미 공공도서관에서의 장르 분류 | V. 결 론                    |
| 1. 장르 분류의 등장 과정        |                           |
| 2. 장르 분류의 적용 사례        |                           |

### 초 록

도서관 분류작업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도서관계에서는 이용자 중심적 분류 또는 독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분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는 bookstore model이라 불리는 장르 분류의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은 물론이고 자료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서관 이용율과 서비스 만족도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미 공공도서관에서의 장르 분류의 적용양상과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도서관계에서 진행되는 분류업무의 의미와 기본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았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조사와 북미 공공도서관 실무자와의 면담 또는 서신 교환을 통해 수집하였다.

키워드: 문헌분류, 장르분류, 이용자 중심의 분류법, 독자 중심의 분류, 분류체계, 분류업무, 도서관분류

### ABSTRAC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user-centered classification or reader-interest classification, as questions have arisen from the meanings and the effects of traditional library classification. American public libraries have used fiction genre classification called bookstore model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schemes. As a result, accessibility to the collection was promoted and library service for their users was improved. This study intends to make a comprehensive inquiry about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functional features of genre classification. To the end, literature survey and interviews or e-mails with librarians in American public libraries were conducted.

Keywords: Library Classification, Genre Classification, User-Centered Classification, Reader-Interest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chemes, Classification Work in American Public Libraries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rho@pusan.ac.kr)

• 접수일: 2010년 11월 23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6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 I. 서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에 접근하여 그들의 욕구를 해결할 작은 실마리를 찾는다. 정태적이고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각종 자료가 도서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동적이고 주관적인 정보소스로 바뀌게 되는 것은 분류라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작업을 통해서이다. 분류는 주제의 유사성에 따라 자료를 군집하거나 분리하고, 계층 간의 다양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에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서관계의 분류업무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분류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학습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known-item searching)하고자 하는 이용자들보다 막연한 독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가 브라우징(browsing)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서,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보다는 문학 자료가 지배적인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에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과감히 벗어나는 새로운 분류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서관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분류체계가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보다는 학문분류의 토대에 따라 질서정연한 체계를 세우려는 도서관의 의도를 반영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표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는데 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듯 도서관 분류작업의 의미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용자 중심적 분류'(user-centered classification) 또는 '독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분류'(reader-interest classification)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이나 어린이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규모나 특성, 이용자의 성향에 적합한 새로운 분류법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아직은 기존의 분류체계를 변형하여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 되지 않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분류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경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학 자료가 전체 장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소장자료의 대부분이 어린이 자료인 도서관에서 DDC나 KDC와 같이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분류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필자가 평소 품어왔던 이러한 의구심은 북미 공공도서관에서의 관찰과 체험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은 bookstore model이라 불리는 장르 분류(genre classification)의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은 물론이고 자료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서관 이용율과 서비스 만족도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분류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서 시작된 이번 연구는 북미 공공도서관에서의 장르 분류의 적용양상과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분류업무의 의미와 기본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관련 문헌을 추적 조사하여 장르 분류의 출현배경과 이에 대한 도서관들의 기대, 그리고 적용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과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미국 및 캐나다 주요 도시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이들 도서관의 분류체계와 서가배열 방식을 직접 관찰하고, 실무자와의 면담이나 서신 교환을 통해 장르 분류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과 분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북미 도서관들의 분류업무에 대한 기본 철학과 보편적인 실재를 우리 도서관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분류가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지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II. 분류의 본질과 기존 체계의 한계

일반적으로 분류는 어떤 대상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고의 類 개념을 구분하고, 이를 유사성에서 따라 다시 최저의 種 개념까지 세분하여 전체를 구조화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도서관에서 이러한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관리하고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sup>1)</sup> 이 두 가지 목적은 일견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를 따져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분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자에 있다고 할 때, 이는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성에 따라 범주화함으로써 관련 자료들을 인접 배치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sup>2)</sup> 여기서 핵심은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자료의 위치를 결정하면서 도서관 장서를 기계적으로 배열해 나가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개별 이용자들이 도서관 장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분류를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차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 이보다는 일관성 있는 표준 분류법의 적용을 통해 보다 완전하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자료를 서가에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할 때, 도서관의 분류업무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유사한 것은 모으고 상이한 것은 구분하면서 도서관 장서를 효율적

1) Lois Mai Cha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3rd ed.(Maryland : the Scarecrow Press, 2007), pp.309-311.

2) Lois Mai Chan, "Classification, present and futur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1, No.2 (1995), p.8.

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후자의 관점에서 분류는 ‘이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용자들로 하여금 방대한 도서관 장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분류는 이용자들의 자료 선택을 돕고, 탐색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자료를 뜻밖에도 찾아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류는 이용자들의 탐색목적과 접근방식에 맞도록 보다 친숙하고 편리한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 가령, 문학작품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방식은 문학형식이나 장르, 언어, 주제, 시대적 배경 등 다양할 수 있다. 이 때, 문학형식을 강조한다면 문학작품은 일차적으로 시, 소설, 희곡, 수필 등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국가나 언어를 강조한다면 문학작품은 한국문학, 일본문학, 미국문학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분류에 있어 이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자료의 체계적 배열과 관리보다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어떤 측면이 더 유용한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적을 명백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자료의 체계적 배열은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성찰해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조직 업무의 철학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역사적으로 주도해 온 Cutter는 “도서관의 편의보다 이용자의 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sup>3)</sup>을 주장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류체계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Cutter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제안한 전개분류법(Expansive Classification)에 반영되어, 도서관의 규모나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표의 개발로 이어졌다. Cutter의 이러한 노력은 후에 Lubetzky와 Svenonius 등에 의해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되었다. 이들은 모든 서지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적용될 근거로서 ‘이용자 편의의 원칙’(principle of user convenience)을 내세우면서 Cutter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sup>4)</sup> 또한, 도서관 분류의 기본 철학을 제시한 Mills는 분류에 적용되는 유일한 원칙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나이와 특성, 자료의 이용 빈도와 성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분류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sup>5)</sup> 이외에도, 도서관 분류는 특정한 상황에 더 적절한 것이 있을 뿐이며 이 때 적절한 것이라 반드시 ‘이용자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sup>6)</sup> 비록 분류에 대한 이용자들의 실제적 요구

3) Elaine Svenonius,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Cambridge : MIT Press, 2000), p.69. Cutter는 편목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이용자의 관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the convenience of the public”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4) 이들이 제시한 ‘이용자 편의의 원칙’은 “서지시스템의 개발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들은 편목업무의 중심에 ‘이용자’를 두고, 사서들로 하여금 항상 이용자에 대한 배려를 마음에 담아둘 것을 강조하였다. Svenonius, *op. cit.*, pp.68-69.

5) J. Mills, *A modern outline of library classification*(London : Chapman & Hall, 1960).

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분류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혹은 어떤 측면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어 왔다.

기존 분류체계의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분류의 본질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주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현행 분류체계의 한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어떠한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파악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모두 706개관이다. 이들 중에서 현재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도서관은 538개관(76.2%)이다.<sup>7)</sup> 나머지 도서관들은 응답하지 않았을 뿐 대부분 KDC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sup>8)</sup>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분류체계는 KDC라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성격을 가진 공공도서관<sup>9)</sup>과 기적의 도서관<sup>10)</sup> 등도 포함되어 있어, KDC는 도서관의 특성이나 규모, 이용자 계층을 불문하고 폭넓게 사용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표준 분류체계임을 알 수 있다. KDC 외에 현재 사용되는 분류체계로는 ‘느티나무도서관 분류표’, ‘파랑새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울산북구기적의도서관 분류표’ 등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도서관(주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분류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한 것이지만, KDC의 분류항목을 수정 전개한 것이어서 이 또한 KDC의 분류체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계에서 KDC의 사용이 이처럼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근자에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발표된 10여 편의 분류 관련 연구를 참조하면서,<sup>11)</sup> KDC 사용에

6) Vanda Broughton, *Essential Classification*(New York : Neal-Schuman Publishers, 2004), pp.8-9.

7) 이 결과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수집한 ‘2009년도 도서관통계’ 데이터(raw data)를 입수하여 분석한 것이다.

8) 이들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현황>이 분류표의 대분류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가 KDC임을 유추할 수 있다.

9)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파악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성격을 가진 도서관은 모두 49개관이다. 이 중에서 24개관이 KDC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나머지 25개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10) 기적의 도서관 10개관 중 5개관(부평, 청주, 제천, 금산, 정읍)이 KDC를 사용하고 있으며, 4개관(순천, 제주, 서귀포, 진해)은 파랑새분류표, 그리고 1개관(울산북구)은 자관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11) 관련 연구들은 주로 어린이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에서 현재의 분류체계를 변형하여 적용하거나 이들 도서관만을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정현, “초등학교도서관을 위한 한국십진분류법 간략판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06), pp.5-23. ; 김정현, 문지현,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06), pp.315-335. ; 문지현, 김정현,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및 분류표 적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06), pp.493-514. ; 오경은, 김기영,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2008. 12), pp.25-42. ; 정연경, 최윤경,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한국십진분류법 적용 현황 및 이용자 요구에

대한 우리 도서관 실무자들의 관점과 관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KDC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실무자들은 “일관성 있는 분류작업이 가능”하고, “분담목록을 통해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경감”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분류표의 적용으로 종합목록의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관된 분류표를 사용할 경우 한 도서관의 분류체계에 익숙한 이용자가 타 도서관에서 적응이 쉬우며”, “분류번호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재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견도 더러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응답내용을 통해 분류업무에 대한 우리 실무자들의 관점이 주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맞추어져 있고, 이용자의 편의보다 관리자의 편의를 중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분류업무에 대한 우리 도서관 실무자들의 인식은 이어진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도서관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KDC가 자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전개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분류기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며”, “분류기호가 길어지는 경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앞서 KDC의 사용 이유가 이용자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주로 업무 효율과 관련된 것 었던 것만큼, KDC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렇듯 분류체계로서의 기본 요건<sup>12)</sup>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자료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제기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 도서관계에서 사용하는 KDC는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 배열이나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분류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주로 채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행 분류체계에 내재된 한계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수는 총 54,584,567책이다.<sup>13)</sup> 이를 KDC의 대주제(주류)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전체 장서 중에서 ‘문학 자료’의 비율은 무려 40.8% (22,250,886책)를 차지한다. 이에 더해, 주제별 자료이용 현황을 산출한 결과에서도, 전체 대출 자료 중에서 문학 자료의 비율이 평균 49.9%나 차지하고 있어 문학 자료의 실제적인 이용을 또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주지하다시피 KDC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와 주제에 망라적으로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09. 03), pp.5-26 등.

12) 분류체계가 가져야 할 기본요건으로는 모든 자료와 주제를 분류할 수 있는 망라성, 분류항목의 객관성과 보편성, 분류항목 전개의 논리성과 계층성, 분류기호의 단순성과 간결성 등을 들 수 있다.

13)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인용 2010. 8. 26].

14) 문학 자료의 이용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 계층에서 모두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전체 대출권수 중 문학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데(2008년 12월 기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문학 자료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모든 계층에서 전체 대출자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
총 대출권수	49,920,500	9,709,500	37,969,724
문학자료 대출권수	22,220,371	5,324,931	19,162,795
문학자료의 비중	44.5%	54.8%	50.5%

※ 출처: 문화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index.do>> [인용 2010. 8. 26].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분류체계이다. 따라서 KDC는 특정 주제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이용자들의 자료이용 또한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적용할 경우,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이용에 불편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분류기호의 편중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편중된 장서를 세밀하게 분류하기 위해 분류기호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장황해지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분류체계가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물론이고, '도서관 장서를 효율적으로 배열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도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KDC의 모태가 되는 DDC를 사용하고 있는 북미 공공도서관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을까? 지금부터는 관련 문헌과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북미 공공도서관계의 자료 분류 및 서가배열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Ⅲ.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의 장르 분류

#### 1. 장르 분류의 등장 과정

북미의 공공도서관들은 대부분 DDC를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서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표준 분류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공공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와 상이한 점은, 그들의 경우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전통적인 분류체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적절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는 데 있다. 가령, 북미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특정 목적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purposive library users)이 아님에 주목하고, 그들의 탐색행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OPAC을 탐색하는 것보다 서가에서 직접 브라우징하는 것을 선호하며, 브라우징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도는 대규모 공공도서관보다 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sup>15)</sup>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서가 앞에서 좌절이나 혼란을 경험해 온 이용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접근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sup>16)</sup>

15) Jacquelyn Sapiie, "Reader-interest classification: the user-friendly schem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19, No.3/4(1995), pp.144-146.

16) Sharon Baker, "Will fiction classification schemes increase use?" *RQ*, Vol.27, No.3(1988), p.367.

이러한 관심은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에 반영되었다. 가령,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장르에 따라 자료에 접근하는 경향이 크고,”<sup>17)</sup> “독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들이 사서에게 질문하는 내용도 원하는 장르의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으며,”<sup>18)</sup> “실제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69%가 특정 장르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찾고 있다”<sup>19)</sup>는 등의 결과가 그것이었다. 더불어, 연구자들은 이용자들을 유인하는데 성공한 서점의 분류 방식 또한 이러한 이용자의 성향을 반영한 ‘장르’에 따른 분류였음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기존의 표준 분류체계를 보완할 하나의 방편으로 장르 분류(genre classification)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났다.<sup>20)</sup> 물론 이에 대해 우려의 의견도 많았다. 공공도서관의 모든 이용자들이 장르에 따른 접근을 선호하지는 않으며,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도서관의 입장에서 새로운 방법의 적용은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한, 장르를 구분하는데 적용할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그에 따른 장르 분류체계의 비논리성도 반대의 이유로 거론되었다.<sup>2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르에 따른 분류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욕구와 탐색행위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도서관인들 사이에서 점차 늘어갔다. 특히,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장서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학 자료와 어린이 자료 등의 분류에 적용해 볼만한 훌륭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장르 분류의 적용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검토는 그간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better accessibility), 특정 분야의 장서를 이용자들의 관심별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집중화된 탐

17) Sharon Baker, *The responsive public library: how to develop and market a winning collection*(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2002), p.282.(Barry Trott and Vicki Novak, “A house divided?: two views on genre separation,”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6, No.2(2007), p.35에서 재인용). ; Sarah N. Lynch and Eugene Mulefo, “Dewey? At this library with a very different outlook, they don’t,” *The New York Times*(July 14), 2007.

18) Elizabeth P. Dumans, “Give’em what they want: reorganizing your fiction collection by genre,” *Library Media Connection*(Oct. 2005), p.20.

19) Amy J. Richard, *Genre fiction classification: a study of the Durham County Library*. Thesis : North Carolina, Chapel Hill, 1999, p.5.

20) 장르 분류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일반적으로 문학 자료에 대해 특정 장르에 따른 분류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이는 이용자 또는 독자의 관심에 따라 주제를 세분해 나가기 때문에 reader’s interest classification이라 불리기도 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서점에서 분류해 오던 방식이라는 점에서 bookstore model이라 불리기도 한다. 현재 장르 분류라는 용어는 반드시 문학작품의 ‘장르’에 국한하지 않으며,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주제나 자료유형, 이용대상자, 소설의 특정 장르, 이용목적, 언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군집화와 체계화한 결과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국내 연구들 중에는 이를 특정 주제나 특정 유형의 장서를 한 곳에 모으거나 다른 컬렉션과 구분하였다는 의미에서 ‘컬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호를 ‘컬렉션코드’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별치기호와 같이 특수한 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분류체계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르 분류는 자료를 단순히 어떠한 ‘컬렉션’으로 구분하는 발상이기보다는, 기존의 ‘학문’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법이 아니라 ‘장르’라는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접근법이라 볼 수 있다.

21) Jacquelyn Sapiie, *op. cit.*, pp.144-146.



색(focused browsing)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장르 분류를 적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sup>22)</sup>

공공도서관에서의 장르 분류는 주로 문학 자료에 많이 적용되었는데, 문학형식(예: 시, 소설, 희곡 등)이나 문학종별(예: 과학소설, 역사소설, 판타지소설 등), 문학범위(예: 단편소설, 장편소설 등) 등이 문학 자료에 적용될 주요 장르로 고려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서관에서 사용해온 대부분의 '표준' 분류표는 열거순서(citation order)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문학 자료에 대해 주제나 내용보다 언어나 문학형식, 시대, 작가 등을 우선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sup>23)</sup> 이 때문에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문학작품'이나 '판타지 소설' 등과 같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내용이나 장르로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기존의 분류체계는 상위 계층의 속성이 하위 계층에 유전되는 계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분류체계의 열거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만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작의 언어'가 '문학형식'보다 우선되는 경우, 언어에 관계없이 특정 문학형식에 접근하고자 하더라도 '원작의 언어'로 먼저 접근한 다음 시나 소설, 수필 등과 같은 문학형식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르 분류는 기존의 분류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정성과 확일성의 한계를 탈피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분류의 최우선 목표로 두었다. 이에 따라 장르 분류에 적용되는 기준도 이용자의 관심이나 이용목적, 소장자료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초기에 주로 개발된 기준은 이용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broad subject)나 문학작품의 세부 장르(genre area), 문학형식(format of work), 기타 문학적 특성(literary quality) 등이었다.<sup>24)</sup> 이에 따라 장르 분류는 개별 도서관이 처한 상황이나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어서 '탈권위적'이고, '개별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절한 맞춤형 분류체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장르 분류를 적용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sup>25)</sup>

## 2. 장르 분류의 적용 사례

1999년에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봉사대상 인구가 100,000명 이상인 미국 공공도서관들 중

22) 특정 분야의 장서를 소규모의 장르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는 자료 이용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Amy J. Richard, *op. cit.*, p.7.

23) 가령, DDC와 UDC, KDC 등은 '원작의 언어-문학형식-시대'의 순으로, 그리고 EC와 LCC는 '언어-국가-시대-개별저자'의 순으로 문학작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Sharon L. Baker and Gay W. Shepherd, "Fiction classification schemes: the principles behind them and their success," *RQ*, Vol.27, No.2(1987), pp.245-251.

25) Richard Maker, "Finding what you're looking for: a reader-centered approach to the classification of adult fiction in public libraries,"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57, No.2(2008), pp.169-177.

에서 94%가 장르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정확한 데이터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필자가 만나본 사서들도 2010년 현재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아리조나주에 위치한 일부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에서 장르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잠시 장르 분류가 공공도서관에 적용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 장르 분류의 적용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지역도서관 내에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대출통계와 이용자들의 요구,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관심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장르 분류를 적용할 자료를 선정해 나간 것이다. 도서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장르 분류를 적용할 자료는 대중적이거나 이용율이 특히 높은 자료들 중에서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소설류에만 적용하거나, 문학 자료 전체에 적용하거나, 성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린이 자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서관에 따라 장르 분류를 적용하는 자료의 범위가 다양하였다.<sup>27)</sup>

장르 분류를 적용할 자료가 결정되면, 이들 자료에 적용할 구체적인 분류기준의 선정이 이어졌다. 선정된 장르의 기준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2차 세계대전'이나 '전쟁', '종교')와 이용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장르('로맨스', '미스터리', '판타지', '역사소설') 등 그 유형이 다양하였다. 이처럼 장르 분류의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장르 분류의 채택 목적이 개별 도서관이 처한 상황과 자관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분류체계의 모색에 있었던 만큼 일관된 분류기준의 적용보다 개별 도서관의 '자율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북미 공공도서관들은 장르의 수와 유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면서, 각기 나름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장르를 구성하여 나갔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1990년에 장르 분류를 처음 도입한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소설류와 전기류 그리고 어린이 자료 중에서 비소설류(non-fiction)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에 장르 분류를 적용하였다.<sup>28)</sup> 독자의 관심과 요구, 그리고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이 이들 자료에 접근할 때 과도한 자료로 인해 특히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DDC 분류방식을 폐지하고, '장르'와

26) Amy J. Richard, *op. cit.*, pp.11-12.

27) Sapiie의 연구에 의하면, 장르 분류를 적용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소설류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② 성인 소설류만 대상으로 한 경우, ③ 독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소설과 비소설류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④ 비소설류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⑤ 비소설류, 소설류, 어린이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⑥ 도서관의 전 장서에 장르 분류를 적용한 경우. Jacquelyn Sapiie, *op. cit.*, pp.143-155.

28) 26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는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총 1,998,495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소설자료는 270,556책(13.5%)이며, 어린이자료는 463,686책(23.2%)이다. 이처럼 '소설류'와 '어린이자료'는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비중이 가장 큰 영역이어서 이들에 대해 별도의 장르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일반 전기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저작이나 그들의 저작에 관한 저작(비평 등)을 포괄하여 '전기류'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르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이용자층’에 따른 복합적인 분류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가령, 소설자료에 대해서는 ‘어린이 소설’과 ‘청소년 소설’, ‘성인 소설’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성인 소설’은 다시 ‘일반 소설’과 ‘미스터리 소설’, ‘공상과학 및 판타지 소설’, ‘서부개척 소설’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어린이 자료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주제(“명절”, “민속”, “세계의 여러 나라”, “전래동화” 등)와 자료의 특성(“그림책”, “수상작”, “연작물” 등), 연령이나 독서수준(“초보 독자”, “쉬운 읽기 책”) 등과 같이 장르의 범주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장르 분류를 적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DDC 분류체계를 적용한 자료들과 별도로 배치하였다. 장르 분류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서가를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장르 표지판’(signboard)을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르 분류를 적용한 자료들은 주로 이용율이 높고,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자료들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였다. 장르분류를 적용한 다음에는 특정 장르에 속하는 모든 자료를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단순하게 배열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이용자들이 ‘저자’에 따른 접근을 특히 선호하며, 자료의 복잡한 속성(예: 언어+형식+시대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던 기존의 분류체계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자료탐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장르 분류의 적용과 함께,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도서목록』을 구비함으로써 장르 분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연령별, 주제별, 상황별 도서목록<sup>29)</sup>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도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장르 분류는 그 기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적용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도서관에서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가령, 밴쿠버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성향을 감안하여 ‘프랑스어’ 자료에 대한 별도의 장르 기준을 마련하였다. “French Fictions”, “French Picture Books”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서의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공도서관에서는 general fiction, mystery, romance, science, fantasy, western, history, thriller, comedy, short stories 등과 같이 장르를 더욱 세분하여 적용하였다. 이처럼 북미의 공공도서관들은 적게는 12개에서부터 많게는 34개까지의 장르를 적용하면서, 이용자의 관심이 특히 많거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 또는 기존의 분류체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자료에 대해 장르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sup>30)</sup>

필자가 직접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0년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르 구분의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러한 기준들은 때로는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가령 ‘청소년을 위한 공상과학소설’일 경우 ‘이용대상자’와 ‘소설의 특정 장르’가 동시에 적용되는 식이었다. 사

29) 현재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연령에 따라 toddlers - preschool & kindergarten - grade 1 & 2 - grade 3 & 4 등의 도서목록을, 주제에 따라 fantasy books, science fiction, mystery books 등을, 그리고 상황에 따라 death, moving, divorce, adoption, bullying 등의 도서목록을 구비해 놓고 있다.

30) Jacquelyn Sapiie, *op. cit.*

서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결과, 현재 북미 공공도서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장르의 수는 20-26개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르 구분

기준	문학 장르	이용대상	언어	주제	매체유형
예시	romance mystery crime science/fantasy comedy history thriller classics western folk tales	birth to six kids teens / young adult adults	Chinese Japanese Korean Arabic French German	holidays war American history	Picture books CD DVD films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공공도서관들이 자신들이 봉사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분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용자들의 자료접근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분류체계가 가진 한계를 실감하고, 도서관실무자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분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자료에 대해 일관된 분류체계의 적용보다 필요나 요구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복잡한 분류기호의 사용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접근법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입장은 북미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면서 필자가 직접 만나거나 서신(email)을 통해 연락한 사서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면담조사의 녹취록과 서신에 남아있는 내용에는 그들의 이러한 생각이 그대로 담겨있다.

“분류는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소설을 찾는 이용자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에 따라 브라우징하길 원해요. 그런데 DDC나 LCC에서는 우선 작가의 국적에 따라 문학작품을 나누고 있어요. 작가의 국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후 서가에 접근하는 이용자가 과연 있을까요? 적어도 공공도서관에서는 그러한 복잡한 체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용자들은 그들이 읽거나 듣거나 보기를 원하는 자료를 서가에서 쉽게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어요.”(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도서관 편목사서와의 이메일 교환: 2010년 6월 9일)

“자료와 이용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서예요. 자료를 분류할 때 이용자들이 이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지, 그리고 어떤 이용자들이 이 자료를 주로 이용할지를 먼저 생각해요. 분류는 서가로 직접 접근하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로(pathway)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서점이나 DVD 판매점 등에서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요. 그것이 대부분의 이용자가 원하는 바이기도 아니까요.”(미국 워싱턴주 시애틀공공도서관 technical service manager와의 면담: 2010년 5월 12일)

### 3. 장르 분류의 효과와 한계

장르 분류의 도입에 대한 북미 공공도서관의 입장이 아무리 긍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장르 분류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사례는 Baker의 연구였다.<sup>31)</sup> Baker는 장르 분류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장르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 3개의 공공도서관(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을 선정한 후 장르 분류를 적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장르 분류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장르 분류는 다양한 분야의 장서를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르에 따라 구분해 줌으로써 이용자들의 서가 브라우징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장서의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장르 분류의 효과는 자료이용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났다. 장르 분류의 적용 이후 세 곳 도서관 모두에서 대출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소규모 도서관보다 대규모 도서관에서의 대출율 증가가 큰 편이었다.

장르 분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Baker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후, 분류나 자료 배열 체계의 변화가 도서관이용율에 미친 영향이나 장르 분류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sup>32)</sup>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장르 분류는 이용의 편의성이나 도서관이용율의 증대 외에도 선호하는 장르 내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선택 대상을 줄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의 탐색시간을 절약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3)</sup> 뿐만 아니라 장르에 따른 선호도나 이

31) Sharon Baker, *op. cit.*, pp.366-376.

32) Amy J. Richard, *op. cit.*

33) Chan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분류의 기능(유사한 자료들을 집중(collocation)하고, 자료의 배가위치를 결정하는 것)에 하나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Chan이 추가한 분류의 제3의 기능은 바로 “partition”인데, 이는 유사한 자료들을 집중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 즉 상이한 자료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도 분류의 주요 기능이라고 주장하였다(Lois Mai Chan, “Classification, Present and Future,” *op. cit.*, p.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장르 분류는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자료들을 장르에 따라 각기 구분하고 있어 Chan이 설명한 제3의 기능을 실행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용자들의 반응을 직접 살필 수 있어서 장르 분류는 장서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르 분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서들이 체감하는 장르 분류의 효과는 무엇일까? 필자가 만나본 북미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장르 분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자체 설명력의 강화’(self-explanatory), 즉 이용자들이 하여금 원하는 자료를 어디서 탐색할 수 있는지를 분류체계가 직접 알려줌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효과는 장르 분류의 적용 이후 “... 분야의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와 같은 간단한 문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는 의견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또한, 장르 분류에 적용된 ‘장르명’을 목록레코드에 기술함으로써 주제명 데이터를 보완하고, 나아가 이를 ‘장르별 카테고리’ 검색에 활용함으로써 목록을 통해 특정 장르에 대한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분류기호를 단순화함으로써 사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장르별로 묶어줌으로써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다른 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르 분류는 실제 적용과정에서 여러 한계와 문제점 또한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르’에 대한 정의의 문제였다. 장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물론이고 장르 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여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 해석상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가령, 상이한 두 장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우, 장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더구나 정당성을 입증할 이론적 근거가 없다보니 사서들은 대부분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여 장르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서들이 적용한 장르에 대해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면서, 장르를 결정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피거나 잘못된 장르에 대해 재분류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분류업무에 혼란을 주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용의 측면에서 장르 분류가 가지는 한계도 있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특정 장르의 자료를 선택하기 위한 도구’로서보다 ‘원치 않는 자료를 배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장르 분류를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up>34)</sup> 실제로 장르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장르 분류가 이용자가 선호하지 않는 장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우연한 발견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34) Richard Maker, "Reader centered classification of adult fiction in public libraries,"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Vol.21, No.4(2008), pp.168-169.

이러한 사례는 집중적인 브라우징(focused browsing)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자 했던 도서관의 의도가 실제 상황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자료에 대한 접근은 차단하는데 역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르 분류가 독자상담가(reader's advisory)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독자상담가는 이용자의 독서능력을 함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이용자 스스로 자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더구나 독서성향이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에만 집중되면서 독자상담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상담가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한 독서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장르 분류는 장르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에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에 대해 포괄적으로 탐색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하다거나, 장르에 따라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도서관의 공간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실무진들과 이용자들은 장르 분류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기존의 융통성 없는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대신, 이용자의 눈높이와 욕구에 따른 분류체계와 배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분류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데 성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르 분류가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이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다. 이들에게 분류업무는 특정 자료가 “어떤 주제 또는 학문분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이용자들이 이 자료를 주로 이용할지” 혹은 “이 자료에 관심을 가질만한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분류업무는 표준화된 분류기호를 생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었고, 형식적이고 완전한 분류체계보다 다소 투박하고 불완전하지만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행태로 이어졌던 것이다.

#### IV. 장르 분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쯤에서 우리의 현실로 다시 눈을 돌려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관중이나 자료의 특성, 이용자의 요구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KDC에 따라 모든 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일부 도서관에서 이를 변용하거나 간략화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KDC의 분류규정에 따라 동일한 분류기호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가령, KDC(5판)에서 조앤 롤링의 소설 『해리포터』는 ‘영미문학 → 소설 → 21세기 → 판타지 소설’의 순서로 분류한다. 실제 도서관에서 적용하는 분류기호는 상세성의 정도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해리포터』의 KDC 분류기

호는 843(영미소설)이나 843.6(21세기 영미소설), 혹은 좀 더 세분할 경우에 843.607(21세기 영미 판타지소설)이 된다.<sup>35)</sup>

이러한 우리 공공도서관에서의 자료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문학 자료를 1차적으로 '원작의 언어'에 따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 이용자들도 반드시 원작의 언어에 따라 자료에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KDC를 사용하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영미문학'에서, 『인어공주』를 '덴마크 문학'(859.8)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독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 경로로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또한, 앞서 북미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밝힌 것처럼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장르'에 따른 접근을 특히 선호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분류체계가 이러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KDC에서 문학 자료의 '장르'는 원작의 언어나 문학형식 등으로 분류한 이후에 '부가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분류체계에서 이용자들이 장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타지 소설'이나 '역사 소설', '로맨스 소설'을 원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도서관 분류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아가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KDC에서는 장르나 시대로 세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sup>36)</sup> 실질적으로 장르구분이나 시대구분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 분류체계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들이 현재의 분류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선, 개별 도서관에서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와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도서관계의 일반적인 관행 속에서 분류업무는 그 수단적 기능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다.<sup>37)</sup> 우리 도서관계에서 분류업무는 '일관되고 완전한 분류기호'를 생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완전한 분류기호를 생성하는 것이 분류업무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완벽한

35) KDC 5판에서는 "필요할 경우 기호 대신 문자를 사용하거나 문자를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는 B, 각국소설은 F, 아동소설은 J(도서관에 따라 아동소설은 JF, 아동그림책은 JE로 표시할 수도 있음)"와 같이 분류기호 대신 문자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학자료가 전체 소장 자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도서관'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라 보고, 이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였다.

36) 가령, KDC에서는 한국·중국·일본·영미문학을 제외하고는 시대나 장르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 이상의 세밀 분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대나 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 한국문학의 경우에도 20세기에 발간된 한국소설이 모두 '813.6'으로, 혹은 한 단계 더 분류한다하더라도 1945년 이후에 발간된 모든 한국 현대소설이 '813.62'로 분류되는 등 실질적으로 시대나 장르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7) 김종성, "어린이도서관 자료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 어린이와 도서관, 제1권(2005), pp.142-161.



분류기호를 생성하는 능력을 사서의 전문성과 동급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우리 도서관계 안팎에 짙게 베어 있다는 사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분류체계가 자료에 대한 접근의 경로를 제공하는 수단이라면, 분류업무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이용자'와 그들의 직접적인 '요구 사항'이다. 그러나 엄격한 분류규정의 준수만을 강조하다보니, 우리의 분류업무에서 정작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실종되고 형식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 도서관계 전체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편목업무의 아웃소싱도 이용자의 요구를 분류작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비생산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편목업무의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sup>38)</sup> 이러한 편목업무의 아웃소싱은 업무의 편의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도서관업무의 수준을 낮추고 분류를 포함한 목록의 전반적인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안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조직 업무를 '도서관들마다 똑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춘 획일적인 생산품을 생산해 내는 과정'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경계심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류업무가 외부의 아웃소싱 업체에 온전히 위임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개별 도서관이 처한 상황이나 이용자의 요구가 분류작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요원한 일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이용자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한 도서관계의 자구책이 여러 각도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도서관별 자료의 특성이나 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배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여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sup>39)</sup> 이러한 인식 하에, 이용자들의 실제 자료이용 실태와 분류체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더불어 국내외 도서관의 다양한 분류 실태를 분석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분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분류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sup>40)</sup> 체제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보다 허심탄회한 논의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류의 가치와 기본방향을 재점검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 장르 분류와 관련하여 진행해 왔던 논의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 장르 분류에 대한 논의는 도서관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시작되어, 다

38) 노지현, "편목업무 아웃소싱의 득과 실: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12), p.396.

3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 개선방안(서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8).

40) 김종성, 전계논문.

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고안해 낸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가 가능했던 이유는 개별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당시의 도서관계의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를 피상적으로 관찰한 후 관리자의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분석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해결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당시의 북미 도서관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분류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본질적 의미와 기능에 맞추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분류체계는 무엇이며, 분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 끝에 나온 결과가 바로 기존의 분류체계를 고수하면서도, 이용의 목적이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 즉 장르 분류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북미 공공도서관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장르 분류 방식이 우리 도서관 환경에서도 반드시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존의 분류체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인해 이를 논의에서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이용자들의 입장을 배려한다면, 자료의 성격별 또는 장르별로 구분된 분류체계와 배가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검토의 과정에서는 물론 우리 도서관 환경에 적용할 때 나타나게 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도서관 환경에서 어떠한 장르나 카테고리를 적용하는 것이 유용한지에 대한 사전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르 구분의 기준을 우리의 도서관 환경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도서관의 소장자료의 성격이나 자료이용행태가 그들과 다르고, 분류의 기준으로 ‘장르’를 적용하였을 경우 보다 유용한 자료가 그들의 사례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장르 분류는 ‘개별 도서관’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분류체계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도서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미 공공도서관들에서 적용하는 장르의 기준이 일정 정도씩 상이한 이유도 그들이 봉사하는 이용대상자가 다르고, 개별 도서관의 자료 구성이 상이하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미 공공도서관들에서는 소장자료의 특성과 자관 이용자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개별 도서관에 적합한 장르 구분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장르 구분의 기준은 개별 도서관이 결정해야 할 몫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북미 공공도서관에서는 장르 분류를 적용하고자 할 때 하나의 장르로 간주할 수 있는 자료의 수가 어느 정도일 때 더 유용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대중적 자료를 그들이 접근하는 패턴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되, 하나의 장르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가 2,000-2,500책을 넘어갈 때 장르 분류의 유용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존의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러 논의와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장르 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북미 공공도서관의 사례와 같이 중앙에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반드시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개별 도서관에서는 소장자료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자료이용 패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장르 분류를 적용할 자료를 선별해 내고, 이들 자료를 근거로 ‘장르’의 기준을 별도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르에 대한 물리적이고 지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장르 분류를 적용한 자료에 대한 물리적 배치는 물론이고, 장르 분류의 한계를 목록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의 자료이용행태와 우리 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세밀한 조사에 기초하여야 할 것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 V. 결 론

도서관의 자료조직 업무에 대한 철학과 패러다임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자료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자료조직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이 ‘이용자’와 그들의 ‘요구’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이동되었기 때문이다.<sup>41)</sup> 분류업무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료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저자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문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분류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질의(request-oriented approach)나 자료를 이용하게 될 이용자(user-oriented approach)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였다. ‘자료를 이용할 이용자가 누구’이며, ‘이 자료는 이용자의 어떠한 요구를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왜 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여 분류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자료 자체에 충실하거나 자료에 나타나는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르 분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충실한 분류법이자 이용자들의 일상적 자료접근 패턴에 근거한 분류체계라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분류체계가 다수의 ‘평균적 이용자’를 잠정적 대상으로 설정하여 ‘평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가져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르 분류는 자료에 대한 개별 도서관의 상황과 개별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분류체계가 전통적인 학문체계에 기반한 것과 달리, 장르 분류는 이러한 형식이나 권위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하게 다가간 것이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르 분

41)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3년에 국제목록전문가회의에서 발표한 『목록원칙규범』에도 포함되어, 목록원칙의 제정에 있어 최고의 목표는 “목록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IFLA,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http://www.ifla.org/files/cataloguing/icp/icp\\_2009-en.pdf](http://www.ifla.org/files/cataloguing/icp/icp_2009-en.pdf)> [cited 2010. 10. 29].

류는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논의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sup>4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르 분류는 분류의 의미와 기본 방향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기획하였다. 우리 도서관계에서 수행하는 자료조직 업무가 '이용자의 편의'보다 '업무의 편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호도되는 것을 보면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분류에 대한 사서들의 관심이 '완벽한 분류기호'를 생성하는데 맞추어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도 업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도서관에서 으레 해왔던 업무'가 아니라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서관 장서에 접근하기 위한 논리적 경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료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탐색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장르 분류는 이러한 관심이 분류업무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한 분류체계의 변화가 자료이용율의 증대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글에서의 논의가 우리의 분류 관행에 대해 진솔한 논의를 시작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42) 가령,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장르 분류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서관장서의 크기에 따라 장르 분류의 유용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장르 분류의 구분기준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적용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는 물론이고, 우리의 환경에 이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